

일하고 싶은 MZ vs 채용 어려운 기업들... 일자리 미스매치

부산상공회의소, 일자리 인식조사 MZ세대 77.5%, 부산 취업 희망 미스매치 가장 큰 원인 '임금'

2만 9152명, 지난해 부산에 줄어든 20·30 MZ세대의 숫자다.

기업에도 젊은 인재가 필요하지만 수많은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있다. 젊고 우수한 인재의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기업 스스로도 매력적인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5일 지역 MZ세대 구직자 200명과 지역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MZ세대와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실태를 조사한 '부산지역 MZ세대 구직자와 기업의 일자리 인식 조사' 자료를 발표했다.

◆기업들 MZ세대 채용 어려움 큰 원인 조사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 대다수는 MZ세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정작 MZ세대들은 부산에서 일하고 싶어 했다. 현실과 기대 간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지역 MZ세대 구직자와 기업의 일자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의 미스매치가 상당하는 뜻이다.

실제 조사에 응한 기업 중 74.7%가 MZ세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중 12.6%는 아예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MZ세대 10명 중 8명(77.5%)은 부산에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런 일자리 미스매치의 1차적인 원인은 임금에 있었다. MZ세대 채용이 쉽지 않은 원인으로 조사 기업의 39.0%가 낮은 임금수준을 꼽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 스스로도 미스매치의 가장 큰 원인이 임금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또 조사에 응한 MZ세대 역시도 가장 많은 비중인 35.5%가 임금 수준을 취업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MZ세대 기대임금은 3000만원 선 실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임금 미스매치 상황을 보면 MZ세대가 기대하고 있는 임금 수준과 실제 기업이 지급하고 있는 임금의 미스매치 격차는

약 4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졸 사무관리직을 기준으로 기업 입장에서 구인난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임금 구간은 2600만원 미만이었다. 2600만원 미만에서는 이를 감내하는 MZ세대 구직자는 5.2%에 그쳤지만 이에 해당하는 임금 수준의 기업은 19.8%로 4배에 달했다.

반면 MZ세대에서 구직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으로는 2800~3000만원과 3000~3200만원이었다. 이들 구간에서는 기업보다 구직자가 더 많았다.

◆MZ세대, 임금 복지 맞으면 중소기업도

결국 기업과 MZ세대 간의 임금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인 초과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2600만원 미만 기업의 임금을 구직 초과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2800~3200만원 구간의 평균 임금인 약 30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인 만큼 이를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양산시 서리단길 2022년 골목상권 활력사업 선정

경남도 주최,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주관의 '2022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사업'에 '서리단길'이 최종 선정됐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 공모사업이다.

창원, 김해, 양산 3개 지자체의 6개 상권이 신청해 서리단길이 가장 높은 점수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서리단길은 전문컨설턴트 진단 후 환경개선, 상권마케팅 비용 등 60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받는다.

/경남=이도식 기자

신안군, 전국 최초 '새우란 축제'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내년 4월 자은면 1004뮤지엄파크 일원에서 전국 최초로 우리나라 자생란인 새우란 축제를 개최한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신안군은 우리나라 멸종위기 난과식물 22종 중 9종이 자생하고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대의 난과 식물 자생지이다.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새우란은 현재까지 새우란, 금새우란, 한라새우란, 여름새우란, 신안새우란, 다도새우란 등 6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중 신안새우란과 다도새우란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안군 흑산도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2009년과 2010년에 세계식물분류학회에 품종으로 등록된 종들이다.

/신안(전남)=안행주 기자 abcd@

고성군 '회장기 세팍타크로대회' 개최

고성군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제33회 회장기 세팍타크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 중·고·대·일반부 세팍타크로선수 500여 명이 참여하며, 만 21세 이하와 만 19세 이하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을 겸한다.

세팍타크로 특유의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차는 환상적인 '롤링 스파이크'와 옆으로 차는 '시저스킵' 등 멋진 기술들을 직관할 수 있어 더욱 열띤 분위기를 뽐낼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경남)=이도식 기자



이정선 광주교육감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지난 14일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교육청 감사관실의 업무 현황과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 요청

광주 학생 실력향상 TF 구성

당선인 해결방안 주문에 팀 마련 방학중 학생 급식 지원 방안 강구

이정선 광주교육감 당선인이 광주 학생 실력향상과 방학중 학생 급식 지원 방안에 대해 취임 즉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인수위에 요청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전체회의를 통해 "다양성을 담은 광주학생 실력향상방안과 방학중 돌봄 사각지대 학생에 대한 급식 제공이 없어 학부모님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어 해결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 당선인의 요청에 따라 인수위 정책비전 분과 내에 다양성을

담은 광주학생 실력향상 TF를, 스마트지원분과에 방학중 학생급식 TF를 각각 구성했다.

광주학생 실력향상 TF는 선주원 광주교육대 교수를 팀장으로 인수위원 3명, 장학관·장학사 4명, 교장·교감 4명, 교사 10명 등 모두 22명으로 구성했다.

실력향상 TF는 초·중·고·대학 단계별 교사 배치, 중·고교 365스터디룸 설치, AI학습시스템, 광주형 진단평가 시스템 개발, 고교 기숙사 운영 등 다양한 핵심추진 과제에 대해 교육청, 교원단체(노조), 학교운영위원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우승희 당선인, 가뭄대책 마련 분주

(영암군수)

군의원 당선자 등과 현장 살피

우승희 영암군수 당선인은 14일 서삼석 국회의원회와 신승철·손남일 도의원 당선인, 강찬원 영암군의회 의장을 비롯한군의원 당선자 등과 함께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확산면 용산리 지역 등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농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올해 영암지역 누적강수량이 161mm로 평년강수량 대비 273mm/58.9% 수준에 그치고 있어 모내기 등 영농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항구적인 가뭄대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기후위기로 되풀이되는 폭우와 가뭄에 대비한 농촌용배수 예산확대가 시급하다"며 "관련 예산과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남)=김용학 기자 jijacecom@



우승희 영암군수 당선인은 지난 14일군의원 당선자 등과 확산면 용산리 지역 등을 방문해 농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우승희 영암군수 당선인은 "모내기용 농업용수 등 현재 농업용수 확보도 시급하지만 모내기 이후의 가뭄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급수대책이 절실한 때인 만큼 농업인과 영암군,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안정적 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남)=김용학 기자 jijacecom@

담양군,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추진

선착순 120명 모집 예정

담양군이 7월부터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오늘건강)과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용해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허약·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스마트폰 소지자이며 혈압, 당뇨질환자가 우선 대상이다.

선착순 12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사전 건강측정 결과에 따른 디바이스(활동량계,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 AI스피커)가 제공되며 스마트폰 앱(오늘건강)을 통해 6개월간 비대면 건강컨설팅 및 맞춤형 건강정보 등이 제공된다. /담양(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하동군 '청학동 삼성궁', 안심 관광지 선정

하동군은 '청학동 삼성궁'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2년 대한민국 안심여행 캠페인' 안심 관광지로 선정됐다.

안심 관광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이 치유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위생·안전 관리가 우수한 관광지로 지난해부터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는 전국 198개 관광지가 선정돼 6월부터

연말까지 '대한민국 안심여행 캠페인'이 진행된다.

이번 안심 관광지로 선정된 하동의 청학동 삼성궁은 고조선의 역사를 간직한 관광지로, 한국 문화의 대표성과 상징성·역사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는 지리산 청학동에 위치해 지역성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통영시 도시공원 내 물놀이장 2곳 개장

통영시가 도시공원 내 물놀이장 2곳을 3년만에 개장한다.

미수해양공원 및 죽림6어린이공원에 위치한 물놀이장은 ▲정글조형물이다 ▲우산조형분수 ▲야자버섯분수 등이 있으며 그 외에 파라솔, 사각 파고라, 그늘막 등 휴게시설도 설치돼 있다. 물놀이시설은 오는 7월 1일 개장해 8월 21일까지 무료 운영한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매시간 45분 운영 후 15분의 휴식 시간을 가진다.

/통영(경남)=이도식 기자